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34화)

감람나무를 해하고자 하면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리라

- 7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
- 1) 피란길에 오른 다섯째 천사
 - 2) 2차 점령을 시도하는 하나님
 - 3)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 4) 대규모 야외집회를 개최함
 - 5)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 6) 1950년 중반, 감람나무에 대한 교계의 해석

5)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지난호에 이어서)
 더욱이 그 감람나무가 다섯째 천사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을 전해들은 기성교회 목사는 기가 막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졌습니다. 물론 전도관 교인들조차도 감람나무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일곱째 천사의 대명사를 입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다섯째 천사 박장로를 감람나무 인물 속단하고 그 박장로를 '감람나무 영모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6) 1950년 중반, 감람나무에 대한 교계의 해석

기성교회 목사들이 비상이 걸려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공부하여 배운 감람나무에 대해서 고작 해석한다고 한 것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구약성경의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이까 하고 나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있는 자니라 하더라(수 4: 11~14)"
 이와 같이 성경 스가랴서에 감람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전도관 소년들이 찾아와서 관심도 두지 않았던 감람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만이 참구세주요, 이 예수만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집착하여 그쪽으로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람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전연 알 리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목사들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신학자들의 주장을 들춰보면서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구약성경의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일제히 그와 같이 주장하고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서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대표적인 등장인물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미래에 출현할 주인공의 상징적인 대명사로 기록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모시고 광야생활 40년간 그의 시종을 들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의 직권을 이어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복지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또 스룹바벨은 신흥국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던 유대인이 해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이까, 스가랴 4장 11절

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할 때 동쪽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황폐화된 성전을 재건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선포하여 오실 자일곱째 천사의 길을 평탄케 예비하다

어떻든 이 두 명칭의 두 인물은 이미 과거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를 과거 구약시대에 흘러간 이 두 인물의 상징적인 명칭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보는 오류를 범했는데, 이는 두 감람나무가 다가올 말세에 인류구원의 사명자로 예언된 것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목사들은 "구약성경은 이미 지나간 성경이고 지금은 신약성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얼토당토 않는 케케묵은 자기당착의 논리에 매달렸습니다.

이에 전도관의 어린 청소년들은 목사에게 "감람나무가 이미 과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들의 상징적인 명칭이라면 왜 신약성경의 목시록 11장에 도록같이 두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예언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니, 이 또한 목사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다섯째 천사 영모님은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의 불은 다 꺼졌다. 목자들은 다 벼어리 개새끼다."라고 연일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벼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니라(사56:10~11)."라고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며 사정없이 목사들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 때에 이루어질 에스겔의 예언을 다섯째 천사의 입으로 선포하여 오실 자의 길을 평탄케 예비하셨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겔34:2)...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 손에서 찾으니(겔34:10)"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들을 쳐버리던 양떼들을 흠여지게 되고 또 그와 같이 되던 흠여진 양떼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상에 선 다섯째 천사는 "하나님이 목자들을 대

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 손에서 찾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기성교회와 그 목사들을 쳐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는 감람나무 구세주를 해산(解産)하는 영적 동정녀(靈母)가 나타나 증거하다

둘째, 50년 중반, 교계에서 신약성경의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이는 이 세상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라. 저희가 권세가 있어 능히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묵11:3-6)."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고 또 하늘을 닫아 비를 못 오게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1956~7년)에는 목사들이 이 성경구절을 보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보고는 '목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성급하게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근거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애굽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삼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게 하다가 다시 비를 오게도 한 사람이라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시록 11장의 이 감람나무는 과거에 지나간 인물들에 대한 대명사가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모세와 같

은 선지자 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장차 오실 구세주의 대명사입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감람나무가 신약에 와서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재차 예언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감람나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사 2천년 동안 기독교인들 중에 아무도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감람나무 구세주를 해산(解産)하는 영적 동정녀(靈母)가 나타나서 증거하니 다들 당황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서기 2천년대에 와서야 기독교계에서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는 시도가 역력히 보입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1956년경에 기독교계는 예수 이외에 이와 같은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전연 백지상태였던 것입니다.

한편 1950년대에 감람나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당시 용문산에 본부를 두고 활약하던 나모 장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영모님과 같이 집회를 한 사람입니다. 영모님은 찬송으로 인도하며 병을 고치셨고 나 장로는 설교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영모님은 그 나 장로와 결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 나 장로는 약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 장로를 통해서 방언신과 입신의 신을 받아 집회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모님은 이와 같은 방언과 입신의 신은 마귀의 신이라고 치면서 방언을 받고 입신을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안찰을 하니 손닿는 곳마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까무러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체육계의 어떤 종목에서 정상에서 기까지지는 육체적인 단련 못지않게 인내심과 혼신을 다해 집중하는 마음의 투쟁에서 이기는 생활을 요구한다. 예컨대 한국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최강의 위치에 우뚝 선 연아퀸(Queen)이나 한국 축구선수로는 최초로 퍽 가디언 '2018 세계선수 100인'에 이름 올린 손흥민이나 둘 다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에서 고통스런 지옥문을 통과하는 혹독한 연단 과정이 있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독일에서 활약한 레전드 차범이나 영국에서 활약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 등 기라성 같은 축구선수가 길을 잘 닦아냈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한국인으로서 두각을 드러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지만 김연아 같은 피겨여왕이 탄생한 이후로 남자 피겨와 아이스댄스 등 재능 있는 한국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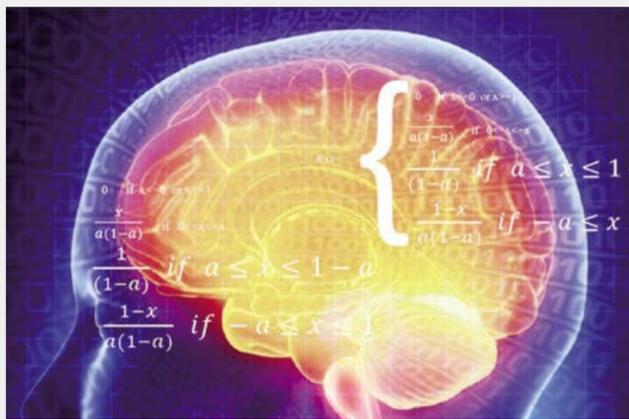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19일째>

그리고 공통적인 관심사로 훌륭한 김연아를 키우기까지 조력자 엄마가 있었는가 하면 훌륭한 손흥민을 키우기까지 조력자 아빠가 있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구세주를 만드는 데에도 조력자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가 계셨던 것이다.

구세주의 몸에서 배출되는 영생의 기원에 물들어야 영생 확신이 조성돼

한 사람이 연단을 통해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하기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다 누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사고, 평범한 사람들이 놀러가고 싶은 곳을 다 가고,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니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저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같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좁은 길을 가야 했던 것이다.

비록 구세주가 될 후보자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영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피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연단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될 처지에 있는 현재 사람들은 구세주에 의해서 닦아놓은 영생의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기만 되는 팔자 좋은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이제 영생의 고속도로 위



인간 두뇌의 지능을 관장하는 알고리즘의 뇌신경망 출처: https://futurism.com

에 놓인 차를 타는 법,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원래 상태의 하나님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하는 법을 구세주 앞에 나와서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영생의 길을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조창성이 다 죽어왔고 지금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죽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나 선입견이 작용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할뿐더러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리 처음부터 영생을 믿으라고 해봤자 소구에 경 읽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영생을 정취

이슬성신을 받는 자의 뇌(腦)는 영생의 기초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algorithm)을 기반(基盤)한 뇌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영생의 학문은 이 세상의 음양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고, 음(陰)과 양(陽)의 이원적인 원리를 초월한 무극(無極)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되기에, 이른바 성경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어떤 선생의 가르침이나 학생들의 배움에 의해서 가르치(眞理: 번치 아니하고 썩지 않는 영생의 학문)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름부음 즉 하나님의 성령(聖靈; 감로이슬성신)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강중산 선생께서는 누구나 깨달음에 있어서 7일 만에 깨닫는 상재(上才)가 있는가 하면 14일 만에 깨닫는 중재(中才)가 있으며 아무리 우둔해도 21일 만에 깨닫는 하재(下才)가 있다고 했다. 강중산 선생께서 다시 율 때에는 신미생(幸未生)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1931년 신미생으로 오신 구세주께서는 승리제단에 입문한 새식구들에게 법우로(法雨露)가 되는 감로이슬을 내려 21일 만에 성도(成道)할 수 있게 한다.

영생학을 이해할 수 있는 뇌(腦) 구조로 바꾸어 주는 감로이슬

구세주의 몸에서 배출되는 영생의 물질을 일러, 불경에서는 '감로(甘露)'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말세에 부여주는 신(神)이 되는 피와 불과 연기기둥 같은 '이슬성신'이라고 한다. 이 감로

배를 드리며 매일 구세주의 감로이슬을 받아 더러워진 피를 깨끗이 맑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세상일에 매진하다 보면 죄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령에 오염되는데, 이때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학문으로 무장된 뇌(腦)의 알고리즘이 파괴되어 영생을 의심하는 죄인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가장한 것이 단에 서게 되어 멸망하게 된다."고 했던 것이다. 가장한 것이 단에 선다는 것은, 성전(聖殿) 곧 몸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에 하나님의 영 대신 마귀의 영이 자리 잡고 행세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세상일이 바빠도, 아무리 세상에서 제단 나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매일 나와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는 육천 년간 마귀가 사용했던 피이고 더러워진 피를 깨끗이 청소하려면 매일 예배를 보고 매일 감로이슬성신을 받아야 한다. 구세주의 몸에서 나오는 이슬성신은 제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피를 맑히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져 마음이 변한다. 이렇게 마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의 피의 작용으로 몸도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여 죽으려 죽을 수 없고 늙으려 늙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